

진안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전개공, 100억 투입 100세대 규모 2019년 완공

전북개발공사는 진안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까지 100억원의 사업비로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

진안군은 2015년 2월 전북개발공사 측에 공모 제안을 제출해 임대주택 수요와 입지여건, 지자체별 지원사항 등 평가기준과 외부 전문가의 현장 및 서류 평가를 토대로 지난해 7월초 도내 농어촌 임대주택건립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회수 재원을 전북개발공사 자본금으로 출자해 지원하며 올해 말까지 임대아파트 건립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2019년까지 공공임대아파트를 완공할 예정이다.

이항로 군수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을 통해 주거안정



을 피하며 도정 3대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을 실현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진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완주 개최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장 등 160명 참석

완주군에서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가 지난 2일 완주군청에서 임시총회 및 워크숍을 가졌다.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주관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명배 서울 성북구청장)가 주최한 이번 모임에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전국에서 2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160여명의 공무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참여해 아동친화 정책을 공유하고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실현을 목표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 결성되었으며 전국 36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완주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용수 한일장신대학 교수의 독일 아동친화도시 사례발표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프랑스 사례발표가 이어져 국제적 이슈를 공유하고 아동권에 대한 인식

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완주군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념 특별기획전시중인 '케이아트 그린어웨이' 그림책전, 삼례 문화예술촌 등을 탐방한 후 삼례 책마을에서 '아동친화도 진단과 진단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실무자 워크숍을 가졌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장이 자발적인 협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연대의 장"이며 "아동이 자신들과 관련 있는 일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분야' 3년 연속 1위

진안군 백운면 두원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경관·환경분야에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진안군은 경관·환경분야에서 201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1위로 선정되어 의미가 더 크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원원정마을이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올해는 두원마을이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하여 2,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2007년 13세대 25명의 쇠퇴하던 두원마을은 재경향우회의 귀향인들이 중심이 되어 행복한 마을로 복원하기 위해 마을회의와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자생적으로 마을정비 사업



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12년부터 진안군 마을만들기 단계별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켜 2016년 현재 42세대 92명의 희망이 살아나는 마을로 변모하게 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꾸불꾸불 옥수수밭 미로축제' 열린다

11일까지 용진 순지마을서

완주군에서는 옥수수를 테마로 '꾸불꾸불 옥수수밭 미로축제'가 열린다. 군에 따르면 완주군 용진읍 순지마을에서 '꾸불꾸불 옥수수밭 미로축제'가 3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꾸불꾸불 옥수수밭 미로축제는 '2016년 특색있는 마을대표축제'로 선정되어 옥수수를 테마로 한 먹거리

및 체험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축제이다.

지난 6월부터 순지마을(이장 민성필)에서는 마을 5,000여㎡ 부지에 옥수수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옥수수밭 미로축제는 옥수수 요리경연대회, 미로에서 길 찾기, 옥수수 빨리먹기, 만경강 습지생태와 둘레길 걷기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이번 옥수수 축제를 통해 유년시절의 추억과 향수를 느끼며 잊혀져가는 고향의 정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미로속 옥수수체험 및 만경강 습지생태탐방으로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수수요리 경연대회 등 행사·체험 참여관련 문의사항은 순지마을 축제사무국 (010-3632-3297, 010-2223-3861)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구이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성료



제21회 구이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2일 모악산도립공원 잔디구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박성일 완주군수, 정성모 군의장, 2,500여명의 면민과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으로 구이면의 기운을 모아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지는 농악 갈반이를 시작해서 난타공연 등으로 분위기를 달구었다.

특히 구이면민의 날 축하행사는 패러글라이딩 축하비행이 하늘에서 날고 땅에서 면민 모두가 우리는 하나라는 한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소망풍선을 하늘에 날리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펼쳐졌다.

올해 구이면민의 날 수상자는 효행상에 윤기열 씨, 공익상에 임병구 씨, 애향상에 김중진 씨, 진철상에 한정덕 씨, 농민상에 임병목 씨, 장수상에 강

부흥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에 이어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 민속체육경기(웃놀이, 물양동이 나르기, 물총선받기 등 6개 종목), 신나는 예술버스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노래자랑과 경품추첨 등 주민 화합행사가 펼쳐져면민모두가 신명나고 즐거운 화합 한마당 잔치의 분위기를 더했다.

김동준 구이면장은 "면민이 지혜를 모아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돼 지역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성황리 마쳐

농촌문화 체험형 축제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가 도시민과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장수읍 의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는 Red Color 농축산물을 테마로 다양한 농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다.

올해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장수 사과와 오미자, 한우 등 장수의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방문객이 축제 행사장 등을 방문했다. 특히 장수한우마당은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한우를 구매하고 맛

보려는 도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을 이뤘으며 Red 및 우수농산물 상품전에도 사과와 오미자 등을 구매하고자 많은 인파가 찾았다.

또한 한우랑사과랑 주제관, 장수사과수확체험,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적과의 동침, 동물농장체험, 추억의 놀이터, 전통민속놀이 마당, 사과카페, 향토음식거리, 각종 문화공연 등 각 프로그램의 내실운영으로 축제 만족도를 높였다.

최용득 군수는 "올해는 장수의 다양한 맛과 멋을 즐길 수 있는 판매 시식행사와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주민 뿐 아니라 많은 도시민들이 장수군을 찾은 것 같다"며 "축제기간 장수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의회, 의정 자문회의 개최

무주군의회는 지난 2일 이해양 의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의정자문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적 운영의 방향 정립을 위한 의정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7대 하반기 원 구상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폭 넓은 여론 수렴 및 민의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와 현장방문을 병행해 실시했다.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무주 반딧불축제'와 마을로 가는 축제의 현장 방문에서는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날 가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유송열의장은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데 많은 조언도 필요하고, 때로는 질책과 지적도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성실히 반영·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태권도원에서 태권도의 날 기념식 행사 리우올림픽 메달리스트와 팬사인회 등 진행

2016년 태권도의 날 기념식이 지난 3일 태권도원(무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태권도진흥재단,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등 태권도 4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이 주관했다.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공동위원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 뿐만 아니라, 이규석 아시아태권도연맹회장, 아흐메드 엘 풀리 아프리카태권도연맹회장, 최지호 판애태권도연맹회장, 로저 피아틀리 유럽태권도연맹 부회장, 스투르트 리 오세아니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등 국내외 태권도계 인사 8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태권도유공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수여 등 공식행사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동반되어 진행됐다. 먼저 이번 리우하계올림픽 태권도종목에서 출전선수 전원 메달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룩한 리우올림픽 태권도 선수단이 참석해 팬사인회 및 태권도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대한태권도협회와 연계하여 약 350명의 태권도인들이 모여 지난 3일 '도장 활성화 방안', 4일 '태권도장 인성교육' 등의 주제로 '태권도인 연찬회'를 개최했다.

태권도의 날 기념식 행사를 주관하는 태권도진흥재단 김성태 이사장은 "전세계 태권도 성지로 자리 잡고 있는 태권도원에서 태권도의 날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이번 기념식의 의미가 더 있다. 오늘 기념식을 태권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태권도를 통해 미래를 품는데 태권도진흥재단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서비스 도입

진안군은 지난 2일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 납부방법이 자동이체로도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그동안 고지서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서비스 납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자동이체 신청은 군 환경산림과와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금융

결제원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자동이체 서비스가 개시되며, 자동이체가 신청되면 본인 소유의 환경개선 부담금이 한꺼번에 자동이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동이체 서비스의 도입으로 납부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한우지방공사 '올해의 공감경영대상'

(사)한국언론인협회와 (사)서비스마케팅협회가 주최하는 "2016 올해의 공감경영대상"은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행복에 초석이 되고 있는 진정성 있는 승자인 CEO 및 브랜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도로써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성영수 사장은 올해의 공감경영대상 수상은 본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수한우의 품질개발과 브랜드관리에 힘써온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라며 "장수한우를 세계최고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 올해의 공감경영대상"은 공감경영을 위한 CEO 역량과 공감경영을 위한 브랜드 시스템 구축, 경영성과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난날 발표된 신실기업 평가에서도 양호한 평가를 받은바 있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성영수 사장은 "올해의 공감경영대상 수상은 본인의 영광일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수한우의 품질개발과 브랜드관리에 힘써온 전 직원의 노력의 결과"라며 "장수한우를 세계최고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용담항교 석전대제 봉행

진안항교와 용담항교는 지난 2일 지역유림과 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 석전대제대 대성전에서 봉행했다. 진안항교에서는 이항로 군수가 초헌관(初獻官)을, 박명석 군의장이 아헌관(亞獻官)을, 이남철씨(부귀면 유림)가 종헌관(終獻官)을 맡았으며, 용담항교에서는 성수태씨(전교)가 초헌관(初獻官)을, 성상림씨(동향면 유림)가 아헌관(亞獻官)을, 유재두씨(용담면 유림)가 종헌관(終獻官)을 맡았다.

석전대제란 중용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의식행사로 음력 2월과 8월 상정일(上丁日)에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진안군에서는 진안읍에 위치한 진안항교(도 문화재 자료14호, 전교 전범형)와 동향면에 위치한 용담항교(도 문화재 자료 17호, 전교 성수태)에서 매년 봄, 가을 2회 치러진다.

진안항교와 용담항교는 석전대제를 비롯한 향교일요학교, 청소년인성교육, 전통문화시연 등 유학의 이념과 성현의 가르침을 전수하며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